**신한은행 최근 이슈**

1. 기관영업 위기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국민연금의 주거래은행이었던 신한은행이 10월 18일 진행된 국민연금 주거래은행 선정 경쟁입찰에서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이 밀려 3순위에 선정되었다. 신한은행이 시스템 구축을 포함에 비용이 들어가는 항목에서 우리은행, 국민은행보다 더 적은 금액을 적어 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이 우리, 국민은행보다 크게 베팅을 하지 못한 것은 수익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연금 주거래은행을 맡은 처음 5년은 흑자를 냈지만 두 번째 주거래은행을 맡으면서 수익성이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IT 사업비 등으로 국민연금에 지출하는 비용에 비해 연금 지급, 운용자금 결제 등 수수료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적었던 것이다.  
   또한, 경찰공무원 상대 신용 대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찰청 입찰에서는 국민은행이 신한은행을 제치고 우선협상 대상자로 최근 선정되었다. 국민은행은 경찰 복지카드까지 포함하는 독점 사업권을 5년간 보장받을 기회를 얻게 되었다.
2. 빅데이터 기반 상담 서비스  
   신한은행이 전국 영업점의 디지털 창구를 통해 ‘빅데이터 기반 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한 ‘빅데이터 기반 상담 서비스’는 창구에 비치된 태블릿PC를 통해 볼 수 있는 고객 분석 자료들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신개념 상담 서비스다. 고객이 태블릿 PC를 통해 본인의 성별, 연령대, 거주지, 직업 등 정보를 입력하면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고객들의 금융생활 관련 분석자료가 화면에 나타난다.  
   분석자료에서는 고객과 같은 조건을 지닌 다른 사람들의 월 평균 소득, 자가 주택 소유 여부, 월 저축 및 소비 금액 등 평균적인 금융생활 정보와 이들의 금융상품 유형별 보유 현황 및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빅데이터 기반 상담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에게 광범위하면서도 금융거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분석 자료들을 제공해 보다 신뢰도 높은 고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